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자	2022년 8월 11일(목) 총 3매	
담당 부서	도시디자인단	담 당 자	• 도시디자인팀장 임철희 ☎440-4791 • 담당자 박미선 ☎440-4794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시민이 찾기 편하도록 청사 안내 체계 개선

- 9일, 색채디자인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-

- 시청 등 공공청사 통합 안내사인 디자인 개발·초·중·고교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누구나 찾기 쉽고 알기 쉬운 공공청사 통합 안내사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‘2022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’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‘2020년 인천시청 이용자 설문조사’에 따르면 시민들이 시청의 본관, 민원동, 데이터센터, 신관, 시 의회를 방문할 때 목적지를 찾기 어려워 하고 있어 시민 불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번 용역에서는 대중교통이나 자동차, 보행 등 다양한 방문동선을 고려한 서비스디자인과 성별, 나이,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알기 쉽고 찾기 편리한 범용디자인(유니버설디자인)을 적용해 정보체계를 통일하고 인천색을 강조색으로 활용해 안내사인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이다.

시는 시 청사와 시 의회청사 내·외부 안내 사인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전면 교체할 뿐만 아니라 색채디자인이 필요한 학교에 색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. 2020년 계산여자중학교 색채디자인 개선에 이어 올해는 내가초등학교(강화군), 인천안남초등학교(계양구), 동산중학교(동구),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(남동구)를 컨설팅 할 예정이다.

임철희 시 도시디자인팀장은 “2015년부터 읽기 쉽고 찾기 쉬운 도시를 지향하며 보행안내표지판, 도시철도 1호선 및 인천숲길 안내사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”며 “이번 사업을 통해 시청과 시의회를 찾으시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누구나 찾기 쉬운 공공 청사의 모범사례로 만들어가겠다 ” 고 말했다.

한편 시는 오는 12월부터 안내사인 일부를 시범제작 설치하고, 내년 3월 마무리되는 용역결과를 활용해 시청사 안내사인 교체시기 시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.

붙임. 착수보고회 관련 이미지 1부

붙임

착수보고회 관련 이미지

